금수강산

1

주체108(2019)

루계 제353호 월간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2. 눈비내려도 폭풍세차도 우린 누구나 두려움 없네
맞이할 승리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련 헤치네
환희로워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강국의 희망 꽃피는 나의 조국아

3. 은혜론 해빛 찬란한 별빛 만년대대로 눈부신 강산
세상에 없는 긍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위대하여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번영의 희망 끝없는 나의 조국아

민족자주통일의 뜨거운 열망

온 겨레의 조국통일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가장물과 함께 통일기와 꽃다발을 열광적으로 흔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로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올 열망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본사기자 방은심

차 례

새해를 축하합니다 · 3
평화와 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여 · 4
일 화
력사의 출발점에서 · 6
단 한번의 상봉으로 · 7
반 향
남녘에 굽이치는 위인칭송의 열풍 · 7
세기적이고 력사적인 사변 · 8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자 · · · · · · · · 8
믿을것은 자기의 힘 · 10
인민의 충정 ·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 12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 · · · · · · · · · · · · · 14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 · · · · · · · · · · 18
여운 · 22
미곡땅에 뿌리내린 세 남매 · · · · · · · · · · · · 24
방문기
《우리 집》 · 26
개성고려인삼으로 유명한 전시장 · · · · · · · · · · 30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며 · 32
공화국기를 우러러 · 33
편 지
보고싶은 동생에게 · 35

조국의 품에 안겨

금메달에 비낀 한 교육자의 모습 · · · · · · · · · · · · 36

고향소식

락원을 마중해가는 고장 · · · · · · · · · · · · · · · 38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 · · · · · · · · · · · · · · · 40

환희의 9월을 생각할 때면 · · · · · · · · · · · · · 41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2) · · · · · · · · · · · · · · 42

인상기

희한하고 훌륭한 공연 · 43

아름다운 나라 · 43

그리움을 안고 부른 열정의 노래 · 44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미술 (1) · 45

사 화

박지원과 《열하일기》 · 46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4) · · · · · · · · · · · · · · · · · · 47

야 화

범고개 · 48

력사인물

왜적을 떨게 한 정기룡 · · · · · · · · · · · · · · · · 49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 · · · · · · · · · · · · 50

민족의 향기

건강식품-콩나물 (1) · · · · · · · · · · · · · · · · 52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 · · · · · · · · · · · · · 53

해마다 증대되는 일본의 군사비 · 54

카멜레온-《자유한국당》 · 56

조선속담 (근면성) · 25

유모아

수탉이 낳은 알 · 25

상 식

조선식답건축술 · 37

겨울철감기예방 · 47

조선민족의 전통화장품 · 49

민족고전 《동국병감》 · 55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주체108(2019)년을 맞으며 우리 《금수강산》편집부는 동포여러분에게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기록된 뜻깊고 의의깊은 해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은 크나큰 흥분으로 설레입니다.
지난해에 있은 북남수뇌분들의 여러차례의 상봉들과 회담들, 판문점과 평양에서 채택된 선언들은 온 겨레를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희망과 환희로 들끓게 하였습니다.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여 세계 각지의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북남수뇌상봉들과 회담들을 적극 지지하면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습니다.
정말이지 반목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지난해 초부터 화해와 평화의 해빙기를 맞아 판문점의 봄을 맞이하고 평양의 가을을 안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여러차례의 조중수뇌회담과 세계적사변으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미수뇌상봉등은 우리 조국의 국력과 지위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으며 여러분들에게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었습니다.
조국과 마음과 숨결을 같이하는 길이 곧 우리 민족을 더욱 빛내이는 길이기에 동포여러분은 자주 조국을 찾고찾았습니다.
지난해 9월 많은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전례없이 큰 규모의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조국인민들과 명절을 뜻깊게 보내였습니다.
아마 동포여러분은 명절의 나날 조국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불패성을 다시한번 느끼였을것입니다.
경축행사들을 본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을 비롯한 많은 해외동포조직대표단의 동포들은 《내 조국의 기상, 무진막강한 국력을 보았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단결된 힘을 보았다.》 등 격동된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읽었고 그것을 잡지에 더 잘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새해에도 애국의 마음을 합쳐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섭시다.
그리고 동포조직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소식들과 동포들의 애국적소행 등을 담은 글과 사진들을 본사편집부앞으로 더 많이 보내주기 바랍니다.
잡지 《금수강산》이 동포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아울러 동포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잡지로 되게 하고싶은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통일애국사업과 다양한 동포생활을 제때에 특색있게 편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이 건강하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과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평화와 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여

주체108(2019)년 새해가 밝아왔다.

이 땅우에 보다 큰 승리를 약속해주는듯 떠오르는 아침해도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흰눈덮인 거리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일터마다에서 장단맞게 울려오는 기대소리들에도, 집집의 창가들에 넘쳐나는 인민의 웃음소리에도 더 아름다와질 래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비껴있다.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고보낸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새해의 이 아침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있다.

자기자신과 가정의 행복이 더 활짝 꽃펴나기를, 사업에서의 더 큰 성과가 마련되기를,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도가 보다 휘황찬란해지기를…

조국인민, 아니 온 겨레가 꾸는 아름답고 황홀한 꿈을 모두 합치고합친다면 아마도 그것은 조국통일의 꿈일것이다.

통일의 길이 바로 우리 민족이 무궁번영하고 더욱 강해지는 길이기에.

지난해 주체107(2018)년 새해의 첫 기슭에서 울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가 다시금 되새겨진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수 없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통이 큰 아량, 대범한 결단으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자 내외는 한결같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큰 조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

페쇄되였던 북남사이에 판문점련락통로가 개통되고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대표단들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였다.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삼지연관현악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들이 남녘땅에 나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따뜻한 봄기운을 더해주었다.

이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 불같은 열정을 안겨주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 이 땅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봄훈향이 일어나게 되였다.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웅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하였다고,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하시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이날 몸소 판문점분리선을 넘나드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그이의 탁월한 위인적풍모를 목격하면서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로부터 29일만인 5월에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고 4.27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합의를 이룩하심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시였다.

지금도 내외가 격찬하고 온 세계를 흥분과 감격으로 끓게 하고있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지와 통큰 결단, 뜨거운 민족애에 의해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더우기 민족의 성산 백두산정에서 북남수뇌분들이 삼천리강토를 바라보시는 감동깊은 화폭은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과 락관을 더 깊이 새겨주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세계는 커다란 격정과 흥분속에 지켜보았다.

《세기의 악수》, 《온 세계를 35분간 정지시킨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으로 지구의 모든 관심과 이목을 통채로 끌어당긴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진정 불과 몇달사이에 여러차례의 북남, 조중수뇌상봉들과 회담들 그리고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력사에 없는 일이였다.

남조선 각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영웅》으로 흠모하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민족사와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특대사변》, 《시대의 물줄기를 정의와 평화에로 돌려세운 전무후무한 대공적》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과 언론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시는 로숙한 정치가》,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이라고 격찬하였으며 미국의 신문과 잡지들까지도 《조선반도의 현 분위기는 **김정은**위원장의 자신감에 의해 이룩되였다.》, 《대화의 원동력은 분명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세계가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쳐주시는 그이를 두고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로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며 전격적인 외교활동들은 그이의 높은 국제적권위와 비범한 예지, 주체조선의 지위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하기에 그이께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일화

력사의 출발점에서

주체107(2018)년 4월 2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에 나오시였다.

긴긴 세월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인 판문점은 분렬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으로 태동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남관계문제와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교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분렬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담에 앞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평화의 집》방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 정 은

2018. 4. 2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와 안정,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있다고 내외가 평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자주의 조선, 불패의 힘으로 다져주신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여기에 그이의 특출한 위인상이 있다.

공화국을 자주로 존엄높고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지상락원으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지난해 정초부터 한해의 마지막날까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에서 사색과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두리에 혼연일체로 뭉쳐진 전체 인민의 애국열정의 분출로 우리 조국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세계를 놀래우는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 번영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신화적인 기적이 창조되였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어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울 결심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만도 례년에 없는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안북도와 량강도, 함경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을 주름잡아 달리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의 날과 달속에 조국의 모습은 나날이 변모되고 인민의 행복은 더욱 커만 갔다.

창조와 비약의 위대한 힘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시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조선을 이끌어가시는 그이를 모시여 우리 조국은 인민의 소중한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지금 세계는 공화국이 백두의 억센 기상을 안고 슬기로운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미증유의 기적을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장엄한 창조와 건설의 영웅서사시를 보고있다.

흘러간 지난해를 돌이켜보고 희망넘친 새해를 바라보는 조국인민들과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이 반드시 일떠설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연욱

일화

단 한번의 상봉으로

주체107(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헐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히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였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미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문제들과 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데 대해 지적하신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오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미수뇌분들의 단 한번의 상봉으로 하여 가장 적대적이였던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반향

남녘에 굽이치는 위민칭송의 열풍

지난해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회담들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은 온 남녘땅을 **김정은**열풍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력사적인 그날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흠모심은 곳곳에서 터져올랐다.

한 주민은 2018년 4월 27일 하루는 감동, 감동, 감동의 련속이였지만 그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분리선을 넘는 순간이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였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 주민은 《**김정은**위원장님이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악수하는 모습에 뭉클하였다.》라고 하였다.

텔레비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목격한 남조선인민들은 저마다 《**김정은**위원장은 거침이 없었다. 말은 스스럼없었고 행동은 자신감으로 넘쳤다.》, 《재치가 있고 호탕하였다. 때로는 솔직하면서도 대담하였고 유모아적이였다.》,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가진 모습이였다.》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만찬회장에서 그이를 만나뵈온 한 인사는 《**김정은**위원장의 모습은 정말 감격적이였다.》고 하였으며 한 《국회》의원은 그이의 접견을 받은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간직하겠다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남조선의 언론과 각계층 인민들은 여러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선언들이 채택된 경이적인 사변은 《통일에 한발 선뜻 다가선 사변》, 4.27선언은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이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새 력사를 펼친 **김정은**위원장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송하였다.

본사기자

세기적이고 력사적인 사변

지난해 6월 12일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서 세기적인 사변이 일어난 날로 력사에 아로새겨졌다.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세계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언론들은 상봉과 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을 《새로운 력사창조》, 《력사적인 사변》, 《력사책과 세계사교과서에 담겨질 회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서명》 등으로 평하면서 이 놀라운 현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세계평화의 영웅》,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신분》, 《전세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으신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미국의 보수언론들까지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할 때 《북조선령도자는 위대한 품성을 소유하고있다. 유모아적이고 리지적이며 자기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거듭 칭송한 소식을 그대로 전하였다.

지난해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두고 이렇게 전하였다.

지난 2017년은 조선과 미국사이의 핵전쟁위험이 가장 높았던것으로 특징지어진 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조미수뇌상봉을 평화에로의 진전을 위한 관건적인 상봉으로 간주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마련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과정의 일환인 조미수뇌상봉은 국제적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의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적진행은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신 현시대의 세계적인 지도자이시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피력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담력과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이시다라고 찬양하였다.

본사기자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자

온 겨레는 민족적사변들로 가득찼던 주체107(2018)년을 보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희망찬 새해 주체108(2019)년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조선반도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고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변화를 안아온 주체107(2018)년.

불과 몇달사이에 여러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여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래왕의 문이 열리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락관하게 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마련되였다.

2년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북남관계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민족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방침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실천적이며 파격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여 오래동안 이그러졌던 북남관계를 바로잡아주시였다.

우리 고위급대표단의 남측방문과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등의 파견으로 남녘땅은 통일열기로 달아올랐고 평화와 통일의 기운은 날로 고조되였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지난해 4월 27일 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였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은지 29일만에 겨레는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이께서 또다시 판문점에서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여 북남관계발전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신것이다.

그이께서 안아오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풍은 얼어붙었던 북남대결의 동토대를 녹이고 평화와 통일의 화창한 봄기운이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게 하였다.

북과 남사이에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고위급회담과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문별회담들이 진행되였으며 통일롱구경기와 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열리고 금강산에서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였다. 북과 남의 체육선수들은 국제적인 경기들에 단일팀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그러한 속에 지난해 9월에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였다. 성과적으로 진행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발전을 가속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시려는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감한 결단과 특출한 령도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려는 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북과 남, 해외가 함께 모여 평양에서 10. 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북남관계에서 일어나는 민족사적사변들을 지켜보며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민족번영의 새시대가 앞당겨진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는 4. 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러자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할 당사자도 북과 남이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는 외세의 승인이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고 그와 공조하여야 얻을것은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만 격화시킬뿐이다. 남조선의 지난 보수《정권》시기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던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보수패당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리면서 북남대결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도의 위험을 조성하였었다.

력사적교훈은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는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제기되는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해결한 좋은 전례를 가지고있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6. 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가 결정하고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북남관계개선이나 통일은 그 누구의 선사품이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오직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관계개선과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 협의해결해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과 장애란 있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는 결실로 맺어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　　*　　*

믿을것은 자기의 힘

믿을것은 오직 하나 자기의 힘뿐이라는 드팀없는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것은 조국인민들의 투쟁기풍, 투쟁본때로 되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려명거리건설에서 발휘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성과가 잘 말해주고있다.

당시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과 침략전쟁소동은 보다 악랄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이러한 때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건설이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 건설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든 건설자들은 그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한걸음에 만리를 달리는 속도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고 온 나라의 일터마다에서는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려명거리건설속도에 발맞추어나갔다. 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를 보란듯이 일떠세워 그 어떤 제재나 압살책동도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선 인민의 힘을 당해낼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 위력은 지난해 사회주의강국건설장마다에서 더 높이 발휘되였다.

사실 지난해에 공화국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실질적이고 책임적인 공헌을 하였지만 우리 조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속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조국인민들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자기의 삶의 요람을 제힘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런 성과는 삼지연군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장들에서 세차게 일어났다.

삼지연군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쉬임없는 현지지도로 건설장들을 찾고찾으시였으며 건설을 빠른 속도로 내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건설장들마다에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칠 배심으로 건설속도를 높여나갔다.

지난해 8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전국도처의 건설장들에서 천지개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져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전진도상에는 엄연하게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폭풍치며 일떠선 인민들의 열의로 신화적인 기적의 력사를 써나가고있다고, 이것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앙양된 기세의 일대 과시이고 일심단결된 조국의 위력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지금 그이의 말씀에 커다란 고무를 받은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자들은 물론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조국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건설장들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련이어 창조되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안주뽐프공장 등 온 나라 일터마다에서는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건재, 자재들을 생산보장하여 건설속도를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고있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일심단결의 힘,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인 힘은 적대세력이 제아무리 제재압박소동을 벌린다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적대세력들까지도 제힘으로 일떠서는 자주적인 나라,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힘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것은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개탄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의 충정

주체108(2019)년 새해가 밝아왔다.

언제나 새해는 사람들에게 밝아온 한해에 대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

누구는 시작되는 새해에 새 꿈과 포부를 얹기도 하고 누구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새해에는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보다 높은 각오, 새로운 결의도 다지며 지나온 해를 돌이켜보기도 한다.

지금도 지난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주체107(2018)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조국땅에 헌신의 자욱을 그 얼마나 많이도 새기시였던가.

지난해 삼복철은 몹시도 무더웠다. 가만히 그늘밑에 앉아있자고 해도 숨이 다 막히는 때였다. 그래서 온 세계가 최악의 고온과 무더위로부터 자기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저저마다 강과 바다, 깊은 산골의 피서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붐비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폭열속에서도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부문에서 큰 몫을 맡아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조국땅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평안북도에서 량강도에로, 함경북도에서 강원도에로,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또다시 함경북도와 량강도, 평양시…

그이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는 자력갱생의 동음이 더 세차게 울리고 생산적앙양의 불바람이 거세게 일어났다.

매일, 매 시각 텔레비죤과 방송, 신문으로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특히 청진가방공장을 찾으시여서 그이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금언과도 같은것이였다.

지난해 7월 청진가방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자식이 메고다닐 책가방을 두고 마음쓰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다심하게 학생가방을 손에 드시고 세심히 만져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재봉을 질적으로 깐지게 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가방을 험하게 다루어도 실이 풀리거나 터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국가적부담이 커지더라도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가격에 대한 군중의 평가를 들어보고 바로잡을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조선로동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절세위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민을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전국각지에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찾아하는 일군들의 소행자료들이 신문들에 널리 소개되고있다.

우리 평양시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만 놓고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인민들은 그런 일군들의 모습에서 당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끼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조국땅 어디서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지금 그이를 받들고 따르는 인민의 충정은 끝이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새해를 맞으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려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그이께서 새해에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정녕 그이의 안녕은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이며 미래이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전호에서 계속)

오가자에는 우리가 무어준 연예대가 있었다. 이 연예대가 계영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삼성학교를 거점으로 활동을 잘 하였다.

나도 길림시절부터 쓰기 시작하여 시험적으로 몇차례 련습까지 해본 《꽃파는 처녀》의 대본완성작업에 달라붙었다. 대본이 완성되자 계영춘이 삼성학교에 조직되여있는 연극조성원들을 데리고 형상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10월혁명 13돐기념일에 삼성학교 강당에서 이 가극을 공연하였다.

이 가극은 해방후 오래동안 파묻혀있다가 1970년대초에 이르러 조직비서의 지도밑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영화와 가극, 소설로 각각 완성되여 세상에 공개되였다. 조직비서가 이때 수고를 많이 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짧은 기간에 료하농촌을 조선혁명군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꾸려놓았다. 우리가 길림주변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고 장춘근방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였지만 오가자에서와 같이 그렇게 철저히 농촌을 혁명화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국제당련락원 김광렬도 경이적인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내세우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개척해나가다나니 국제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하였다. 국제당 동방부에서 그 당시 우리에 대하여 많은 론의를 한것 같다. 조선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혁명가들이 나타났다. 어느 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인데 군중지반도 좋다고 한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이런 호기심에서 련락원까지 보낸것 같다.

김광렬은 할빈련락소에 갔다가 오가자에 와서 우리 동무들도 만나보고 혁명조직책임자들도 만나고 유지들도 만나보았다. 많은 사람들과 담화한 후 나와도 만났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고무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있으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아올렸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혁명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에 대하여 아주 놀랍게 생각하였다. 련락원은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를 규정하는데서 심각한 론의가 계속되고있는데 당신들은 완고한 민족주의세력들, 종교인, 지어는 자산층들과도 손을 잡으니 이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련락원에게 소수 공산주의자들이나 로동자, 빈고농의 힘만으로는 혁명을 할수 없다, 일제를 타도하자면 중간세력까지도 다 동원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조선에서는 대다수의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까지도 다 외세를 반대하고있다, 혁명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은 한줌도 못되는 지주, 예속자본가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뿐이다, 나머지사람들은 다 동원하여 거족적인 항쟁을 조직하자는것이다, 조선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독립하는 비결은 반일을 하는 모든 세력을 다 쟁취하는데 있다고 말해주었다.

련락원은 그 설명까지 듣고나서 《당신은 고전에 구애되지 않고 만사를 독창적으로 처리하는데 나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모스크바류학을 권고하였다.

《당신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인데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겠소.》

그때 김광렬은 나에게 양복과 와이샤쯔, 넥타이, 구두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열어보이며 국제당에서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재삼 권고하는것인데 그 권고에 응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아마 그는 국제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를 설복하여 모스크바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온것 같았다.

나는 김광렬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어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동만에 나가 인민들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쏘련에 들어가서 흘레브를 먹게 되면 로씨야파가 될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선에 엠엘파요, 화요파요, 서울파요 하는 파가 많아서 그러지 않아도 가슴아픈데 나까지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맑스-레닌주의는 책을 보고 공부할 작정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차광수와 박소심을 비롯한 나의 동무들도 토로즈에서 류학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다 꾸려놓고 나에게 모스크바에 가라는 권고를 한적이 있었다.

나는 그해 12월 하순 오가자에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그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카륜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데 있었다.

일본은 군국주의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국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고 령토를 팽창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길에서 장애로 된다고 인정되는것은 가차없이 소멸하였다.

우리는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동만에 나가서 진지를 차지하고 침략에 맞설 준비를 하려고 하였다. 동만으로 나가자면 중부만주지방에서의 활동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준비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그렇게 되여 소집한것이 오가자회의였다.

이 회의에 조선혁명군의 핵심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다 참가하였다. 간도와 온성, 종성지구에서 채수항을 비롯한 많은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령하 30℃의 혹한을 무릅쓰고 오가자로 찾아왔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내던 숱한 청년혁명가들이 이 회의를 계기로 면목도 익히고 정도 나누면서 조선혁명의 장래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회의에서 초점을 두고 론의된것은 동만에서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문제였다. 투쟁의 기본무대를 동만으로 옮기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지향이였다. 그것은 혁명앞에 도래한 정세를 보아도 미룰수 없는 문제였다. 내가 오가자에 있으면서도 동만을 잊지 않고 동만으로 나갈 날을 초조하게 고대한것은 그때문이였다.

나는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과업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도 제기하였다.

회의의 전과정은 청년학생운동과 농촌지하운동으로부터 무장투쟁단계에로 이행하여 적들에게 결정적공세를 가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카륜회의가 무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광복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였다면 오가자회의는 그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항일대전의 마당에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었다.

오가자회의는 카륜회의로부터 1931년의 봄명월구회의와 송강회의, 겨울명월구회의를 거쳐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일제와의 결전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우리의 청년학생운동은 193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오가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도약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내가 오가자를 떠날 때 문조양이 10리밖에까지 따라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래주었다.

(끝)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대상설비생산에서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소재부문이 앞장에 서고있다.

이미 연소모형주조기술을 확립하여 수차바가지를 생산한 선군주철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치차생산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연소모형주조기술로 대치차를 생산하면 제품걸면의 정밀도는 물론 소재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가공시간을 단축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대상설비생산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게 된다.

안인철, 주수광을 비롯한 기술자들과 공장의 로동자들은 대치차생산을 위한 기술공

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그 성공을 앞당기고 있다.

소재부문의 뒤를 가공부문인 1기계직장이 바싹 따라서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타닝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경사깎는 자동지구를 창안제작하여 작업에 도입함으로써 제품가공의 속도와 질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모범을 따라 치절작업반의 로동자들 역시 치차이발깎기에 필요한 자동분할지구들을 만들어 치절작업에 받아들임으로써 대상설비생산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압축기설비가공을 맡은 로동자들의 열의 또한 드높다.

대형선반작업반의 선반공 신영일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 설비가공에서 어려운 곡축가공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가고있으며 보링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면서 압축기본체가공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4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대상설비생산에서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선반공 전철호는 바이트설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설비의 능률을 최대한 높이는것과 함께 설비관리를 주인답게 하여 기대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선군압축기직장의 로동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종전의 20㎥L형압축기보다 무게가 훨씬 가볍고 부피도 작으며 수명이 긴 새로운 20㎥V형압축기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목형직장, 1제관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부분품생산에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강원도양묘장이 새로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 큰 은을 내고있다.

양묘장은 수십정보의 면적에 수지경판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삽목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구역과 관리청사, 종합편의시설, 살림집 등 수십개의 건물과 시설물로 되여있다.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꾸려진 이 양묘장에서는 한해에 2 000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생산되고있다.

이곳 배영숙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곳 강원도인민들이 자체로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운데 이어 1년간 양묘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나무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한다.

지금 양묘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무모비배관리에서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생산량을 보다 늘여나가고있는것이다.

종합조종실에서만 보아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구축한 통합생산체계에 매 나무모들의 상태까지도 측정하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받아들이였다. 하여 나무모를 안전하게 또 허실없이 튼튼히 자래우도록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수지경판온실에서는 2회전 진행하던 나무모생산을 3회전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작업반장 김준남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자

기들은 양묘장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여러차례의 시험을 진행해본 결과 능히 그렇게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게 되였으며 앞으로 그것을 실행할 목표를 세우고 일해가고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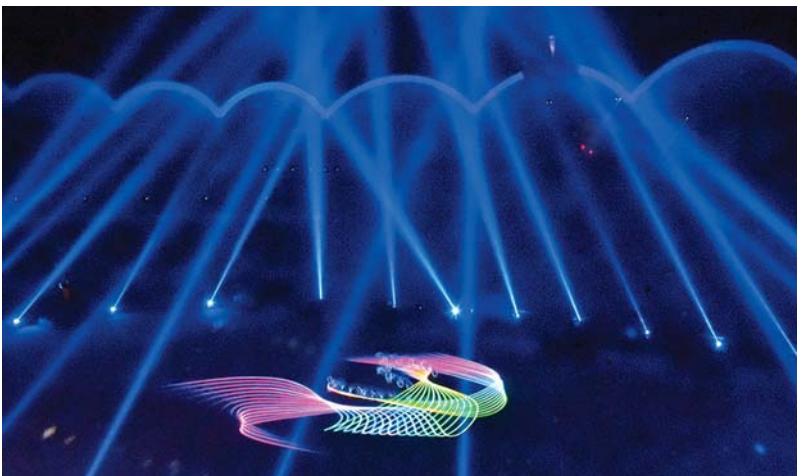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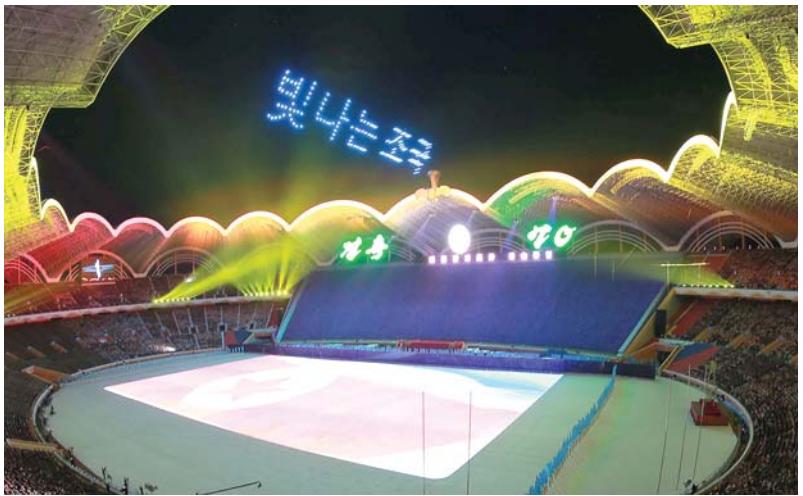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나무모생산을 늘여가려는 이러한 기풍은 야외재배장과 풍토순환구의 종업원들속에서도 일어나고있다. 그들은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지난 시기 자래우기 힘들다던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풍토순화시켜 대량 퍼치고있다.

경기질생산장의 작업반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업반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각종 조종반, 진동채선별기들을 개조하여 그 성능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었다.

기대공 심규재는 말하였다.

《양묘장의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나무모를 더 증산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 실정에서 경기질을 생산보장해야 하는 우리 작업반의 임무도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 작업반에서는 여러 설비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렸는데 힘은 들었지만 성과는 대단히 크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나무모생산목표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에 맞게 얼마든지 경기질을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워 더 많은 나무모들을 키워내려는 종업원들의 열의는 원형삽목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 등 어디에서나 일어나고있다.

종자선별 및 파종장에서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수지경판온실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모들을 생산하고있다.

묘목전시장

여 운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막을 내린 때로부터 시일이 적지 않게 흘렀다.

하지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대한 사람들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만나본 해외동포들의 심정도 하나와 같았다.

의 문

《공연이 시작되자 하늘에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명이 새겨지고 빙빙 도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도 모르게 야! 하고 환성이 나갔다. 처음으로 하늘에 글을 새기는것을 보았다. 훌륭하다. 어떻게 했는지 알고싶다.》

《그뿐이 아니다. 매 장면들이 다 특색있다. 암전되였다가 환해지면 푸른 물 출렁이는 백두산천지가 펼쳐지고 파도가 광란했다. 또 참매가 하늘을 나는가 하면 순간에 바다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속에서 물고기들이 꼬리치며 노니였다. 신비경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싶다.》

이것은 김영옥, 김영자 재중동포들이 한 말이다.

우리는 동포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공연의 총연출가들중의 한사람인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김목룡 피바다가극단 총장과 마주앉았다.

그는 백수십대의 무인기로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발과 함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새겼다는것과 수백대의 무빙조명기 그리고 여러가지 레이자조명설비들에 의한 3D조형과 체조무용수들과의 배합형상으로 살아움직이는 화폭을 창조했다는것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에 첨단기술과 기재들을 예술에 도입한 나라들이 많지만 그 기술과 기재보다 수만명의 출연자들이 하나와 같이 살아움직이는 화폭을 형상하기란 조련치 않다고 말하였다.

나이와 무관계하다

나 리따, 리 와짐 재로씨야동포들은 이번 공연에서 제일 어린 출연자가 5, 6살이라는데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5살이면 아직 응석을 부릴 나이인데 실수없이 형상하니 놀랍기만 하다.》

제2장 4경 《세상에 부럼없어라》에서 손에는 풍선을 들고 외바퀴자전거를 타면서 기교동작들을 재치있게 펼쳐보인 평양교원대학부속 개선유치원의 쌍둥이들인 엄강은, 엄령은어린이들과 어른들도 하기 힘든 줄넘기기교들을 수행한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의 6살난 김유정, 김기룡어린이들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공연을 보아주시며 기뻐하실 아버지원수님을 생각하며 훈련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뿐아니라 공연에 출연하였던 예술인, 근로청년 등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들을수 있는 말이였다.

조선에서만 할수 있다

윤영기 재미동포, 윤성원 재카나다동포들은 제일 인상깊은것이 관람석 맞은켠에 있는 배경대였다고 하면서 《콤퓨터에 프로그람을 적재하여 기교를 부려도 이런 황홀경은 펼쳐보이지 못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공연의 배경대에는 평양시안의 고급중학교 학생 1만 7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배경대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을 화려하면서도 눈부시게 그리고 다채로우면서도 립체감이 나게 펼쳐보이였다.

그들이 훈련할 당시 날씨가 너무 무더워 조금만 몸을 놀려도 땀방울이 곬을 지어 온몸으로 흘러내렸다고 한다. 배경대 출연자들은 훌륭한 예술작품을 완성할 하나의 지향으로 마음을 불태우며 서로서로 마음과 뜻을 합쳐갔고 그것은 그들의 심장을 하나의 호흡, 하나의 숨결로 맥동치게 만들었으며 천변만화의 주인공들로 되게 하였다.

출연자들 누구라 할것 없이 하나가 되였기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대걸작으로, 대성공작으로 될수 있었다.

하기에 해외동포들뿐아니라 외국인들은 출연자는 수만이지만 심장은 하나라는 말이 나온것이 우연치 않다고 하면서 이런 공연은 조선에서만 할수 있는 공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미곡땅에 뿌리내린 세 남매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청년작업반에는 세 남매가 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정든 고향 평양을 떠나 이곳에 자원진출한 유총숙, 유폭숙, 유탄원이다. 사실 그들은 친혈육이 아니라 부모없이 자라던 아이들이였다고 한다. 그러하였던 그들이 하나의 성을 가지고 한집에서 친혈육처럼 자랐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여서는 미곡땅으로 자원진출하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그들을 데려다 키운 사람은 평양시 선교구역 률곡1동에서 사는 윤혜숙녀성이였다. 언제인가 그는 평양의학대학병원(당시) 보건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다시 생명을 받아안은적이 있었다. 그때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낀 그는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하겠다는 공민적 자각을 가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그때부터 제 자식만이 아니라 총숙과 폭숙, 탄원이외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어머니정을 다해 키웠다.

세 남매(오른쪽 유총숙, 가운데 유폭숙, 왼쪽 유탄원)

그렇게 자라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총숙이가 어느날 윤혜숙녀성에게 문득 농촌으로 갈 결심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자기도 평양에서 한드레벌로 자원진출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처녀농장원처럼 미곡땅에 뿌리를 내려 본때있게 농사를 짓겠다는것이였다.

딸애의 말을 듣는 어머니의 심정은 무척 기뻤다. 자식이 키만 큰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마음 또한 크게 자랐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총숙이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며 떠밀어주었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과 같이 총숙은 윤혜숙녀성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바통으로 이어받은것이였다.

총숙은 자기의 결심을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으며 구역의 일군들과 주민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미곡땅으로 떠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으로 진출하여 쌀로써 나라를 받들 결의를 담은 유총숙의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그의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총숙의 소행은 그대로 동생들에게도 충격을 주어 그후 폭숙이와 탄원이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곡땅으로 진출하였다.

농장벌에 처음 섰을 때 그들의 꿈과 포부는 컸다. 그러나 농사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런 그들을 위해 청년작업반원들은 친오빠, 친언니의 웅심깊은 심정으로 농사일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으며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들도 제일처럼 여기며 풀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힘들세라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집단의 방조속에 그들은 세찬 비바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였으며 얼마후에는 작업반의 핵심, 기둥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늘 봐야 모내기와 김매기, 탈곡에 이르는 영농공정들마다에서 두몫세몫의 일을 하고 또 생물농약과 대용비료생산,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앞장에 서며 논밭을 옥토로 전변시켜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청년작업반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음과 힘을 합쳐나가군 하였다.

언제인가는 소출에서 서로 차이나는 필지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을 찾아 먼길을 다녀오기도 한 그들이였다. 힘에 부치고 지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나라의 쌀독을 채워야 한다는 하나의 마음을 안고 농사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갔다.

그러한 그들을 나라에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대표로 불러주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도록 내세워주었다.

그날 세 남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쌀로써 조국을 굳건히 받들어가는 미곡벌의 애국농민이 될것을 절절히 아뢰였다고 한다.

오늘도 그들은 그날의 맹세를 가슴에 새기고 미곡땅에 자기들의 깨끗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조선속담
(근면성)

-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논밭을 직심스레 가꾸면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소출을 많이 낼수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개미는 작아도 탑을 쌓는다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면 마침내 훌륭한 결과를 이룰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첫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면 온갖 복이 다 들어온다는 뜻으로서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라는것을 가르쳐 이르는 말.

* * *

유모아

수닭이 낳은 알

어느날 지체있는 한 량반이 소풍을 할겸 거리에 나갔다가 시장에 들렸다.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구석에 닭알꾸레미를 펼쳐놓고 쭈그리고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멍청하니 쳐다만 보고있는 좀 부실해보이는 한 닭알장사군에게로 다가갔다.

《수닭이 낳은 알을 열알 사겠소.》

《아니, 수닭알이라니, 처음 듣는 말인데요.》

어리둥절해진 장사군의 말이였다.

《그럼 내가 고르지요.》

그 량반은 제일 크고 충실하게 생긴 닭알 열알을 골라 꾸레미에 담으며 말하였다.

《수닭이 낳은 알은 언제나 이렇게 크답니다.》

* * *

방문기

《우리 집》

《기자선생님, 우리 집을 소개해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재간둥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때 우리와 만났던 남포애육원 김만복어린이가 어깨를 으쓱이며 한 말이다.

얼마전 우리는 만복어린이와의 약속을 지켜 남포시 와우도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남포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았다.

- 무럭무럭 자란다 -

먼저 우리가 찾은 곳은 남포육아원이였다.

우리와 만난 김명순 남포육아원 원장은 나라의 혜택속에 훌륭히 일떠선 새 집으로 이사한 원아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자라고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육아원의 여러곳으로 안내해주었다.

복도의 바닥에 큼직하게 쓴 수자들이 있고 벽면에 동화그림들이 그려져있는 육아원의 내부는 동화세계를 방불케 했다.

우리가 들린 곳은 세쌍둥이방이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다니는 로동자의 자식들인 세쌍둥이들이 곱게 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있었다.

몇살이냐고 물으니 깜찍한 손가락을 펼쳐보이며 3살이라고 하였다.

쌍둥이들이 실하다고 이야기하자 김성희보육원은 원아들의 영양관리에 특별히 힘을 넣고있다고 하면서 벽면에 걸려져있는 류다른 경쟁도표를 보여주었다.

김강철, 김전경, 김선경어린이들의 이름이 올라있고 키와 몸무게가 도표로 표시되여있었다. 서로가 어슷비슷해 누가 앞섰는지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김명순원장은 육아원에서 어린이들이 하루 섭취해야 할 영양식품들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누구나 튼튼한 몸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고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육아원에서는 매달 20일이 되면 어린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계측하는데 여기서 몸무게가 늘지 않거나 감소되게 되면 육아원적인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였다.

우리는 젖먹이방에 들려서도 배불리 먹고 동심에 맞게 만들어진 침대에서 쌔근쌔근 잠에 든 원아들을 보았다.

세쌍둥이들을 비롯한 어린원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방들의 벽면에 써붙인 《우리 집》이라는 글발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았다.

- 재간둥이들로 -

육아원을 나선 우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높은 남포애육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종합유희실이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구면인 김만복어린이를 볼수 있었다. 그는 무척 반가와하며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서 1등을 한 자기 중창조를 소개하였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법 어깨를 으쓱거리며 불렀다. 노래를 다 부른 만복어린이는 자기네 중창 말고도 녀성독창도 1등을 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고보면 원아들은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어느 하나도 못하는것이 없는듯싶었다.

우리와 만난 함명희분과장은 애육원에서는 원아들의 재능을 꽃피워주는것과 함께 학교전교육의 기초를 닦아주기 위해 그들의 지능계발에도 특별히 힘을 기울이고있다고 하면서 지능놀이실로 이끌었다.

콤퓨터에 마주앉아 조그마한 손으로 건반을 다루는 원아들의 모습은 대학생들을 련상시켜주었다.

그들은 《글자와 단어놀이》를 비롯하여 화면에 제시되는 문제들을 척척 풀어나갔으며 그림도 제법 잘 그리였다.

운동실, 무용실 등 여러곳에서 봄싹처럼 움트는 원아들의 재능도 엿볼수 있었는데 모두가 재롱스럽고 귀여웠다.

육아원이나 애육원이나 부모는 곁에 없어도 친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원아들을 감싸주고있기에 모든 원아들이 아무런 구김살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는것이였다.

우리는 원아들이 한결같이 부르는 《우리 집》에서 부러운것없이 자라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될것을 기대하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개성고려인삼으로 유명한 전시장

조선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인기는 국내뿐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아가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의례히 개성고려인삼과 그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을 찾군 한다.

그중에는 보통강구역 붉은거리에 위치한 대성수출품전시장도 있다.

주체83(1994)년에 세워진 전시장에서는 개성고려인삼과 그것을 원료로 하여 만든 여러가지 인삼제품들을 판매하고있으며 몸보신에 좋은 인삼영양료리들도 봉사하고있다.

전시장의 박옥심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전시장에서는 개성고려인삼제품들과 인삼료리들을 봉사하고있다.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인삼을 재배하여온 개성지방의 물을 먹고 그 땅에서 자란 인삼이여서 그런지 약리적효능이 매우 높다.》

전시장은 3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개성고려인삼매대는 1층에 있다.

매대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가지수가 정말로 다양하다.

철통으로 포장하였다고 하여 손님들이 일명 철통인삼이라고도 부르는 개성고려인삼(홍삼)과 홍삼가루, 인삼엑스, 인삼정액, 개성고려인삼차, 개성고려인삼오미자차…

오영심판매원은 《개성고려인삼에는 수삼, 백삼, 홍삼이 있는데 그중에서 홍삼이 제일 좋다. 특히 홍삼은 암예방 및 치료, 당뇨병치료, 스트레스해소, 혈관계통과 내분비계통을 강화하는데서 수삼, 백삼에 비할바없이 약효가 으뜸이다. 개성고려인삼은 남녀로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을 원료로 한 화장품, 식료품들도 조국인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서도 호평이 대단하다고 말해주었다.

매대에는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한 화장품들이 품종별로 전시되여있고 개성고려인삼술, 개성고려인삼단물 등 여러가지 식료품들도 있다.

전시장에서는 명료리들과 함께 개성고려인삼영양료리들도 성의있게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인삼닭고기탕, 인삼닭곰, 인삼영양밥, 인삼돼지발쪽찜, 인삼소꼬리탕, 인삼영양죽, 인삼김치…

여러가지 인삼료리들도 봉사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과 함께 대추, 밤, 은행 등 비타민함유량이 많고 몸을 추세우는데 좋은 약재들이 어울린 료리들은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구미를 부쩍 당기게 하고있다.

이곳 전창관부원과 안명학주방장은 개성고려인삼료리를 맛본 사람들이 다음에는 자기 가족들, 동료들을 데리고 또 찾아온다고 하면서 인삼의 덕으로 몸과 혈색이 좋아진 손님들을 볼 때면 봉사자로서의 긍지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구미에 따라 개성고려인삼료리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고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것과 현대적인것을 결합시켜 료리기술을 더 세련시켜나가고있다고 덧붙였다.

하기에 전시장을 찾았던 중국관광객 담롱해는 《개성고려인삼이 좋다는것을 말로만 들었다. 이번에 조선에 와서 개성지방에도 가보고 오늘은 또 이 전시장에 가득있는 인삼제품들을 보며 그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래서 개성고려인삼술이며 인삼으로 만든 화장품을 샀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의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는 개성고려인삼, 그 인삼의 매력과 더불어 전시장은 자기의 독특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호평을 받고있는 개성고려인삼제품들의 일부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며

강의를 하고있는 김원

흔히 저녁시간은 가정주부들에게 있어서 제일 바쁜 시간이라고 한다.

그것은 집안식구들을 위해 저녁식사도 맛있게 차려야 하고 아침에 못다한 가정일을 구석구석 헤아려야 하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서성구역 장경초급중학교에서 외국어교원을 하고있는 허경에게 있어서도 저녁시간은 매우 바쁜 시간이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집식구들의 구미에 맞게 저녁식사준비를 하느라 정성을 기울이고 식사가 끝나면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원으로 일하고있는 남편인 김원의 사업을 도와 콤퓨터에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축해주느라 마음을 쓴다.

교육자부부인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언제인가는 남편이 다음날 강의할 내용을 영어로 준비하고있는 모습을 본 안해는 그의 회화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많은 청취자료들을 들려주며 부족점을 퇴치하도록 조언을 주었으며 자기가 학생이 되여 남편의 강의를 주의깊게 듣기도 하였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안해가 평양시안의 초급중학교 외국어교원들의 회화경연으로 바쁜 시간을 보낼 때면 솔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나섰고 경연에 필요한 다매체자료들을 가지고 안해와 토론도 함께 한 그였다.

강의에서 무엇인가 새것을 들고 나올줄 아는 남편의 조언은 안해에게 막혔던 길도 열리게 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려지도록 하였다.

부부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에 의해 허경은 지난해 여름에 있은 평양시안의 초급중학교 외국어교원들의 회화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

많은 교원들이 1등의 비결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남편에게 그 성과를 고스란히 넘기군 하였다.

그들부부는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뿐아니라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일요일이면 과학기술전당에 함께 가 지식의 탑을 더 높이 쌓아가기도 한다.

그 나날 김원은 학위도 수여받았으며 강좌적으로 강의를 참신하게 잘하는 젊은 교원이라는

학생들속에 있는 허경

공화국기를 우러러

평양체육단 녀자레스링선수 공훈체육인 박영미,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게양되는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던 금메달수상자들속에는 그도 있었다.

우승의 단상에서 공화국기를 우러러 그가 흘린 눈물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금메달로 보답하였다는 기쁨의 눈물이였다.

2013년과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도 1등을 한 그였지만 이번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우승은 류다른것이여서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그가 두볼을 적신 눈물은 보다 뜨겁고 열렬한것이였다.

그런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에 있은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이어 8월에 진행될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레스링 53kg급경기에 또다시 참가하게 되였다. 당시 앞서 있은 선수권대회 결승경기에서 무릎을 상한 그는 치료를 받으며 다음 경기를 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조금도 락심하지 않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였고 치료 또한 직심스럽게 받

박영미

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대회날자가 다가오고 그의 무릎이 완전히 낫지 않게 되자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영미선수의

평가도 받게 되였다. 그의 안해 역시 새로운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모범교수자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퇴근길에서

그들은 가정의 귀여운 자식도 앞으로 교육자로 내세울 생각을 하고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은 아마도 김원부부를 가리켜 하는 말일것이다.》

《정말 김원교원네 가정은 노래 〈우리 집 사람〉에도 있듯이 서로가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다.》

…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과 대성구역 룡북동 30인민반의 주민들은 19층 2호에서 사는 이들가정을 누구나 칭찬하고있다.

오늘도 이들부부는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기 위해,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쟁쟁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탐구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경기대회참가를 보류할것을 제기하였다.

사람들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조국의 영예와 직결된것으로 하여 책임감독도, 감독도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영미선수는 단념하지 않았다. 비록 다리는 성하지 못해도 기어이 금메달을 쟁취하려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은 막을수 없었다.

사실 그는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으로서 15살때까지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 그림그리기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러던 그에게서 레스링선수로서의 재능의 싹을 찾은 평양체육단의 감독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를 훌륭한 레스링선수로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하여 그는 2년만에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그후에는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하여 련이어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기의 짧은 선수생활체험을 통하여 나라의 고마움을 가슴에 새긴 그였기에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겠다는 마음 또한 남달리 강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를 보며 감독들은 잠시나마 주저하였던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그에게 힘을 주었다. 지어 선수들 아닌 온 체육단이 그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는 집단과 나라의 믿음을 안고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예선경기와 준준결승경기마다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보기 좋게 제압하며 경기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우승으로 가는 길은 결코 헐치 않았다. 한것은 그가 준결승경기에서 맞다들게 될 선수가 2017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한 일본선수인데다가 앞서 경기과정에 말썽을 부리던 그의 다리 슬개골이 골절까지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다나니 경기결과는 뻔한듯싶었다. 실지로 경기는 그렇게 흐르는가싶게 7대5로 일본선수가 앞선 상태에서 마감시간 몇초를 남기고있었다. 그 짧은 순간 영미선수의 2점짜리 특기기술이 성공으로 이어져 그는 일본선수를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경기규정상 점수가 똑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이긴것으로 된다.)

이것은 육체적조건에 앞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그의 정신력이 가져다준 승리였다. 바로 그런 정신력이 있어 그는 결승경기에서도 《무적》을 자랑하는 까자흐스딴선수를 11대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길수 있었으며 종당에는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다.

그때 금메달쟁취라는 형언할수 없는 감정의 파도속에서 그의 가슴속에 먼저 안겨든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 보다 뜨겁게 느낀 조국의 믿음과 사랑이였다. 하기에 우승의 단상에서 그가 공화국기를 우러러 그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던것이다.

더 높은 목표달성을 위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로씨야 싸할린주 아닙스끼구역 첼레즈노다로쥬나야거리 2번지 윤규중(최정자)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동생, 백발이 되여 이렇게 불러보니 눈물부터 쏟아지오.

헤여져 60여년세월 왜 그렇게도 소식 한장 없었는지. 이제는 동생의 얼굴마저 희미해져 까마득히 어릴 때 본 기억을 되새겨보는 나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헤여질 때조차 사진 한장 남긴것이 없으니 동생을 그려볼수 없는 마음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구만.

그런데 얼마전 뜻밖에도 인편을 통해 동생이 살고있는 곳도 알게 되고 동생이 이름도 고쳐부르고있으며 이 오빠를 찾는다는 소식도 알게 되였소.

동생의 소식을 알게 된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아오. 너무도 놀랍고 마음설레여 눈물로 온밤을 새웠소. 그러느라니 아득히 흘러간 어린시절 우리가 살던 잊지 못할 집이 떠오르고 인정많던 부모님들, 마당가에서 뛰놀던 우리 남매의 모습이 눈에 삼삼 어려오더구만.

동생, 정말 그때가 그립소.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리고 동생과 함께 단란하게 모여살던 그 시절이 말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헤여져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왔구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애타는 그리움속에 이젠 우리 남매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였소.

참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쓰리고 미여지오.

동생도 이 오빠를 찾자고 속을 많이 태웠을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래 애타게 노력하던 끝에 끝내는 나에게 소식을 알려준것이 아니겠소.

인편에 동생은 이 오빠걱정을 무척 하였더구만. 하지만 내 걱정은 더는 하지 말라구. 나는 마음무던한 집사람과 함께 두 아들을 두고 회창군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있소.

맏아들 창선이는 전문학교(당시)를 나오고 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원으로 일하고있소. 지금 맏이와 함께 살고있는데 며느리와 손녀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참 끔찍하다오. 둘째 창국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진료소에서 의사로 일하고있는데 주민들이 그 애가 의술도 높고 정성 또한 지극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칭찬하고 존경하는지 모른다오.

동생, 자식들모두가 나라의 혜택으로 어엿하게 자라고보니 그 기쁨이 어디에 비길데 없구만. 그리고 세간을 낸 둘째네도 좋은 집에서 아들딸 낳고 잘살고있소. 요즘에는 자식들이 모두 모여앉아 내 여든번째 생일을 뜻깊게 쇠야한다고 말하군 하는데 그 모습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눈굽이 젖어들며 부모님들과 동생생각을 하게 되오.

동생, 언제쯤이면 조국에 오겠소. 자식들도 내 생일날에는 동생이 꼭 참석했으면 하오. 정말이지 나도 동생이 보고싶구만. 동생과 만나여적 못 나눈 혈육의 정을 밤이 지새도록 펴놓고 나누고싶은것이 내 심정이요. 그래야 머리가 희여지도록 가슴에 쌓이고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가시여질것 같구만.

동생, 나는 이제나저제나 그날을 기다리겠소.

그날까지 동생이 몸건강하길 바라며 펜을 놓겠소.

그럼 안녕히.

평안남도 회창군 회창읍 15인민반
윤세중오빠로부터

금메달에 비낀 한 교육자의 모습

얼마전 조선체육대학을 찾았던 우리는 박정철 감독2학부 학부장을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학부장선생을 만나려면 대학체육관의 유술훈련장으로 가야 한다는 학부의 한 교원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니나다를가 그곳에서 박정철학부장이 강의를 하고있었다.

유술훈련장에서 우리는 체격이 크고 틀지게 다듬어진 유술인특유의 자세와 매우 잘 어울리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 시간에 배운 업어치기동작을 다시한번 반복해봅시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고있었던듯 두 남학생이 박정철학부장앞으로 나섰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업어치기로 제압시키는 동작을 순간에 수행하였다.

《가만!》

박정철학부장은 학생들에게 동작수행의 방법과 요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나서 반복동작을 시키였다.

우리의 곁에 서있던 한 유술강좌교원이 《사람들은 흔히 금메달은 경기에서 체육선수들만이 따는것으로 여기고있지만 금메달을 따낼수 있는 준비는 감독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를 훈련장옆에 자리잡은 유술강좌실로 이끈 그 교원은 박정철학부장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년전 12월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조선체육대학 감독2학부 학부장으로 임명되여 첫 출근길에 오른 박정철선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한것은 유술, 권투, 레스링, 륙상, 체조, 국방체육, 민족체육과 같은 여러 종목의 감독들을 양성하여야 하는 학부의 실정으로 볼 때 학부장의 임무와 역할이 자못 컸기때문이였다.

12살때부터 유술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지난 40여년간 조선체육대학의 체육단에서 유술선수, 감독, 책임감독을 거쳐 유술강좌 교원, 강좌장으로 선수후비와 감독양성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왔으며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유술협회 서기장의 중임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그러하였던 그가 이제부터는 중경기, 경경기, 민족체육, 국방체육과 같이 거의 전반적이다싶은 체육종목들의 선수훈련지도를 직접 맡아할 체육일군양성사업을 하여야 했던것이다. 무엇부터 어떻게 하여야 할지 그는 방도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박정철학부장은 학부안의 일군들 그리고 종목별강좌 교원들과 수십차례나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학부안에서 교수훈련지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나갔다. 사색끝에 찾아쥔것이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였다.

그는 학부안에서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드세차게 벌리였다.

교원들은 과학기술전당과 체육과학도서관을 찾아 현대체육과학기술을 끊임없이 탐구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운동기재들도 창안도입하였다. 또한 학부의 종목별강좌 교원들은 한가지이상의 가치있는 론문들을 발표하였고 외국어실력도 한계단 높여나갔다.

교원들의 수준이 올라가니 학생들의 실력도 따라서 올라갔다. 주체105(2016)년부터 학부의 학생들은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체육경기들에서 이전시기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누구나 체육단들에서 실력있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이윽고 강의를 마치고 우리와 만난 박정철학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국제경기무대에서 우승하여 람홍색공화국기를 올린 체육인의 금메달은 개인의 영예이기 전에 나라의 영예를 빛내이는 표창과도 같습니다. 이 금메달은 감독이 먼저 따야 한다고 나는 늘 미래의 〈감독〉들에게 강조하군 합니다.》

길지 않은 말이였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박정철학부장의 열렬한 애국심, 높은 창조적적극성, 참다운 교육자적자세와 기풍 등을 엿볼수 있었다.

홍안의 시절 국제적인 유술경기들에서 10여차례나 금메달을 쟁취하여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지닌 그는 자기의 두 아들도 우수한 유술선수들로 내세웠다.

지금도 일본에 살고있는 그의 큰이모 정맹순동포는 90고령에 이른 몸이지만 조국의 체육경기성과들에 눈과 귀를 맞추어가며 동포들에게 조국의 품에 안겨 어엿하게 성장한 조카자랑을 늘 즐겨한다고 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권해

학생들의 훈련을 지도하는 박정철(왼쪽에서 두번째)

상식

조선식탑건축술

조선식탑건축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탑건설에 관한 건축술의 총체로서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의 옛탑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여있다.

나무와 돌 등 건축재료에 따라 나무탑, 돌탑 등으로 구분되는 조선의 옛탑들에 적용된 건축술은 고구려에서 창조되고 실천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백제와 신라는 물론 바다건너 일본에까지 전파되여 우리 민족뿐아니라 인류의 탑건축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선식탑건축술은 초기의 나무탑위주의 탑건축술로부터 점차 돌탑위주의 탑건축술로 발전하였다.

조선식탑건축술은 오늘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되고있는데 탑기단과 탑몸, 탑머리로 구성된 탑의 구성수법은 현대의 거의 모든 탑들에 그대로 적용되고있으며 옛탑건축의 비례수법도 현대탑건축에 도입되고있다.

* * *

고향소식

락원을 마중해가는 고장

얼마전 우리는 조선동해기슭의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함경남도 락원군을 찾았다.

바다를 옆에 끼고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를 따라 아담하게 들어앉은 소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 학교, 문화회관, 공원…

이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읍지구의 전경이였다. 더우기 우리의 눈길을 끌어당긴것은 바다가 여기저기에 펼쳐진 양식장들이였다.

지방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놓고

바다가고장의 류다른 정취에 반한 우리는 먼저 려호수산협동조합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군의 일군인 빈영철은 락원군은 우리 나라 주요수산기지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군에만도 락원대흥수산사업소, 락원대경배수리공장, 다시마사업소를 비롯하여 여러 수산사업소들과 양식사업소 등이 있다고 말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며 바다에 나가보는것이 어떻느냐는 그의 말에 마음이 동한 우리는 배를 타고 려호수산협동조합의 섭조개양식장으로 향하였다. 드넓게 펼쳐진 양식장에서는 섭조개수확이 한창이였다. 바줄마다에 가득 들어붙은 섭조개는 무거웠지만 양식공들의 얼굴들마다에는 기쁨이 실려있었다. 흐뭇한 작황에 성수가 난 양식공들이 끌어올리는 바줄마다에 섭조개들이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배가 기울어질 정도였다.

바줄하나에 매달린 섭조개들의 무게가 50㎏이상은 실히 될것 같다며 김수범양식공은 《농사군에게는 수확계절이 한철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풍요한 계절은 따로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섭조개양식장과 좀 떨어진 다시마사업소의 양식장에서도 섭조개를 수확하는 양식공들의 흥성이는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에까지 날아왔다.

바다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한 양식공들의 자랑넘친 목소리를 뒤에 남기고 우리는 락원대흥수산사업소에로 배머리를 돌리였다. 그곳에서는 먼바다로 나간 고기배들이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계속 돌파하고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한기망에 2t이상이다.》, 《선창에 물고기가 넘쳐난다. 운반선을 보내라.》

공해상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통해 우리는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풍요한 가을은 수산사업소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반농반어업을 하고있는 서중협동농장에서는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동시에 추켜세워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나가고있었다. 지난해에만도 4정보의 섭조개양식장을 조성하였을뿐아니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알곡도 증수하여 농장원들의 수입을 늘여나가고있었다.

이불장, 양복장, 찬장, 책상, 의자는 물론 생산과정에 나오는 유휴자재로 합판도 자체로 만들어내는 목제품생산협동조합과 수산물과 축산물, 농산물을 리용하여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하는 식료공장을 비롯하여 우리가 돌아본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이 정상화되여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군에서는 최근년간 자연흐름식수도화를 실현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유치원, 살림집, 병원 등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여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꾸리였다.

군을 돌아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난날 땅과 바다가 있으면서도 그 덕을 보지 못하여 사람 못살 곳으로, 퇴조(물러갈 퇴, 조락할 조)군으로 불리우던 고장.

그러나 오늘은 인민들이 꿈꾸고 바라던 리상과 념원이 꽃피는 군으로 전변을 안아오며 그 지명도 락원군으로 불리우고있지 않는가.

우리는 저녁노을속에 만선기를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배들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락원군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바다가양식장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동포여러분,

반세기가 넘는 분렬의 력사를 밀어내며 통일의 력사가 눈앞에 다가온다는 기쁨으로 가슴들먹이게 하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맞는 해외동포여러분들께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주체108(2019)년을 맞는 조국인민들은 지난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의의있게 장식한 긍지와 함께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설레이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들이 마련되고 좋은 합의들이 이룩되였으며 오랜 세월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가 바로잡히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 향한 훌륭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습니다.

북남사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들이 련이어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것은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통이 큰 결단과 강철의 의지, 비범한 령도력의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하기에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들에서 우리는 통일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욱 가다듬게 되였습니다.

특히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보면서 민족성원 누구라 없이 민족의 통일열망을 강렬하게 느끼였으며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한다면 서로가 얼싸안고 희열에 넘쳐있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민족이 한자리에 모인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였으며 대회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세계가 보란듯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고 공동호소문도 발표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고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발걸음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가며 북남선언리행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의 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옵니다.

뿐만아니라 해외동포여러분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애국의 길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를 비롯한 동포조직들에서는 동포들속에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정말이지 지난해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고 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더욱 세차게 굽이친 한해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존중의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할 때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올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3.1인민봉기 100돐을 맞는 해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모두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쳐 북남선언리행에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갑시다.

해외동포사업국 처장 오성호

환희의 9월을 생각할 때면

이렇게 새해를 맞고보니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들끓던 지난해 9월이 떠오른다.

지난해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재중동포들도 조국에서 인민들과 함께 이날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함께 조국에서 진행된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조국에서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중앙보고대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홰불야회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 음악무용종합공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진…

행사장들에 서니 나는 새해 정초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헤쳐가신 헌신의 천만리가 되새겨져 눈시울이 절로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향하여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가고있는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며 그이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이 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성과가 더 높이 이룩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나 조국인민들을 비롯하여 온 겨레가 그 얼마나 환희에 넘쳐있었던가.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첨예한 대결국면의 북남관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되였으며 대외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조국은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다.

70년전 인민의 뜻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으로 변모된 우리 조국,

하여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도 더욱 의의있게 진행될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빛내여가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 뜨겁게 맥박친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인민들의 그 모습에서,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군력, 과학기술력을 과시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조국의 오늘만이 아닌 래일의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바라보는 사회주의강국이 반드시 일떠서리라는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였다.

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책임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련합회산하 모든 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질풍갈이 내달리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 최수봉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2)

그분의 호방하고 활달하신 필체를 음미해보느라면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하시며 남측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최고령도자님의 자애넘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다.

국무위원장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여서 새해부터 평창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의 경사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기 위해 북녘의 대규모통일사절들이 휴전선을 넘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악의 전쟁접경에 다달았던 《한》반도에 화해의 순풍이 휩쓸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분단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는 특대사변이 일어났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마련된 수뇌상봉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경륜과 비범한 결단, 대범한 포옹력의 일대 과시였다.

외세가 기긴 세월 강요한 민족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단호히 부정하시며 강토의 허리를 갈라놓은 분리선을 한걸음에 성큼 넘으시던 격동적인 순간순간들, 문재인대통령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분리선을 다시 넘으시여 경탄을 자아내신 파격의 연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은 우리 민족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온 겨레에게 페부로 절감하게 해주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사소한데 이르기까지의 하나하나의 동작)에서 받아안은 겨레의 감격과 환희, 국제사회의 놀라움과 격찬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그로부터 또 한달이 되여 판문점에서 격식과 틀을 벗어난 두번째 수뇌상봉이 열려 세계를 놀래웠고 북남관계는 오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속도감있게 추진되여나가고있다.

싱가포르북미수뇌회담 또한 얼마나 지구촌에 메가톤급충격을 주었던가.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 력사의 6월 12일,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 자리에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국무위원장님의 뜻깊은 말씀은 세계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가 화해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뢰성이였다.

그 모든 경이적인 사변들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교과서처럼 순간에 터득하게 해주고 그 특대사변들이 앞으로 또 어떤 위대한 대변혁으로 이어지게 되겠는가를 환히 내다보게 하는 국무위원장님의 명필체가 아닐수 없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필체는 계승이 위대하여 더욱 돋보인다.

필체전문가들이 국무위원장님의 필체는 《20~30° 기울어진 각도로 오른쪽 우로 올려쓰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필체를 련상시킨다.》고 한결같이 평한것처럼 그분의 필체는 신통히도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의 필체 그대로이다.

사상과 뜻도 하나이고 품격과 기상도 같아 필체도 그렇게 신통히 닮은것이 아니겠는가.

파란많은 지난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정치원로로, 강철의 정치가로 각광받으시며 민족의 운명과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신 **김일성**주석님, 류례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여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이북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 그분들의 지론과 기상을 이으시여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사상과 신념도 백두산용자와 같이 끄떡없고 위용찬것이라고 본다.

하늘을 날으듯 거침없이 내달리신 활달한 필체와 정의와 용맹이 나래치는 필맥 그대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처럼 민족과 세계사의 획을 긋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을 모시여 북이 강대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전략적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세계가 공인하는 강대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고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비범한 필체에서 빛발치는 세계적위인의 출중함과 무비의 정치력으로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는 온 우주를 한품에 안아 현대사의 흐름을 확신성있게 주도해나가고계신다.

재카나다동포 고진호
(2018년 7월)

희한하고 훌륭한 공연

이번 조국방문기간에 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였다.

정말 멋있었다. 60평생에 그렇게 훌륭하고 희한한 공연은 처음 보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규모와 형식은 아마 그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할 엄두를 내지 못할것이다.

수만명의 출연자들은 높은 예술적기교와 째인 안삼불로 황홀경의 세계를 펼치였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여러가지 동작들을 하나와 같이 훌륭히 수행하는지 정말 놀랍기만 하였다.

배경대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이다. 나는 배경대출연자들을 입장할 때부터 지켜보았는데 얼마나 조직적이고 규률있는지 불과 몇분동안에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는것이였다. 그들이 눈깜빡할 사이에 천변만화하는 조화를 부리며 작품에 따르는 황홀경을 배경대에 펼치는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마치도 그 모든것이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콤퓨터의 프로그람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으로 착각되였던것이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너무도 신비한 세계에 들어선것만 같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신비로운 배경대를 보아야 할지, 아름다운 춤률동을 펼치는 출연자들을 보아야 할지, 머리우로 날아예는 참매와 형형색색의 조명효과 그리고 현란한 축포를 보아야 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조국인민들의 집단력과 단결력, 문화수준을 잘 알게 하여주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나는 보고 또 보고싶은 심정이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 지명자

아름다운 나라

고국에 오기 전에 나는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본적이 있다. 사람들과 운수수단들의 자취가 없는 말하자면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 대한 내용의 글이다.

이 책을 보게 된것은 내가 고국에 대하여 물으면 일부 사람들이 이 책에 비추어서 이야기해주었기때문이다.

그러나 55년만에 고국을 밟아보는 나로서는 생각하던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깜짝 놀랐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였고 얼굴에는 항시적으로 순박하고도 진실한 감정이 실려있었다.

한번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있었던적이 있다. 봉사원이 오더니 《제 마음입니다.》라며 기다리면서 과자를 들라고 식탁우에 놓아주는것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다녀보았어도 진심어린 이런 말, 이런 행동은 여직 본적이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여서 그런지 도시 또한 아름다왔다. 공기가 깨끗하고 환경오염도 없었으며 대동강의 물도 매우 맑았다.

아침시간에 산보하려고 대동강반에 나가면 정갈한 공기에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것 같았다. 이것은 나뿐아니라 함께 고국을 찾았던 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거기에 멋들어진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훌륭한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평범한 인민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보금자리를 펴고있다니 정말 놀라왔다.

참말이지 고국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나라이다.

이런 고국을 나는 자랑으로 여긴다.

재카나다동포 윤성원

그리움을 안고 부른 열정의 노래

지난해 4월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된 해외동포예술단의 공연에서는 특별히 관중들의 절찬을 받은 노래가 있었다.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김용, 김경자부부가 부른 노래 《첫 사랑을 약속할 때》였다. 이 노래는 조국의 어느 한 예술영화 주제가로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랑받는 노래들중의 하나이다.

남성고음에 녀성대중가요가수의 목소리가 잘 어울린 노래는 음정이 특색있고 감정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주체100(2011)년 중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앞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들의 노래를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수도 선참으로 보내주시고 공연성과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축배잔도 찧어주시였다.

뵈옵기 전에는 한껏 긴장되여있던 그들은 그이의 너무도 소박한 옷차림과 소탈하신 품성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세간난 자식들을 대하듯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구석구석 따뜻이 물어주시는 그이의 물으심에 그들은 어려움도 다 잊고 아뢰였다.

그날은 그들부부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날로 되였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뵈온 그날이 위대한 장군님과의 마지막날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그들은 아버지를 잃은 자식마냥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으며 항상 그이앞에서 노래부르던 행복한 순간을 그리며 무대에 나서군 하였다.

길림성교향악단의 부속학교 교원으로 학생들을 배워주고 예술활동을 벌리는 바쁜 속에서도 그들은 조국인민들앞에서 부를 노래들을 고르고골랐으며 짬짬이 련습하였다.

그러던 그들에게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부부2중창을 하게 되는 행복의 순간이 차례지게 되였다.

근 30년동안 부부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눈짓 한번으로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는 그들이였지만 2중창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노래색갈을 맞추기 조련치 않았다.

대중가요를 불러온 그의 안해는 노래를 곡상의 요구대로 잘 불렀지만 고음가수인 김용동포에게 있어서는 힘에 부치였다.

힘들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래를 들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했다. 그 순간을 되새겨볼수록 소리색갈과 감정은 스스럼없이 흘러나왔고 노래도 곡상의 요구대로 잘 형상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했으며 만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게 되였다.

첫 공연을 진행한 그들부부는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노래가 끝나자 고국인민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수많은 공연들에 참가했어도 이런 진정어린 찬사는 받아본적이 없다. 이 찬사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그이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고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인민들을 고무해주는 노래를 더 많이 형상하겠다. 우리의 예술은 고국과 함께 숨쉴때 더욱 빛날것이다.》

오늘도 그들은 후대교육사업과 예술활동으로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미술 (1)

민족미술은 조선인민의 생활과 미감, 예술활동과 관련되여있으며 그 유산들에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 생활감정과 정서가 생동하게 반영되여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미술은 당대사회의 현실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기초하여 생활반영의 폭을 넓히고 생활속에서 주제를 다양하게 찾아 여러가지 미술형태들에 반영하는것과 함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술기법들을 보다 완성시키면서 민족적특성을 뚜렷이 살린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미술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는 우리 나라 중세미술사에서 회화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 전해오는 시기이다.

이 시기 회화창작가들은 주로 도화서에 전속된 중인신분의 도화서 화원들이였으며 그밖에 민간화가들과 문인량반화가들이 있었다.

회화작품의 소재는 인물, 풍경, 꽃, 새, 풀, 짐승, 벌레를 비롯하여 다양하였으며 그림들은 구륵, 선묘, 몰골 등 여러가지 조선화적인 기법들로 그려졌다.

조선봉건왕조의 성립후 회화분야에서는 앞선 시기에 비하여 묘사령역이 확대되고 개성적인 화풍이 창조되는 등 성과가 이룩되였다.

인물화에서 화상이 우선시되고 풍속화가 독자적인 묘사대상으로 확고히 등장하였으며 방안장식을 위한 화조령모화, 정물화와 산수화가 많이 그려졌다. 한편 궁중에서의 각종 행사를 보여주는 력사기록화 등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16세기말-17세기 초엽 회화에서는 두차례의 반침략전쟁후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양된 민족적자각과 애국심, 실사구시를 기본으로 하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고주의와 사대주의적경향에서 벗어나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려는 경향으로부터 인물풍속화, 풍경화, 동물화 등 작품의 주제적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기-19세기 중엽에는 변화된 시대상과 미감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묘사대상의 령역이 훨씬 더 넓어졌으며 당시의 인물풍속화는 비록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계급적측면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은 가지고있으나 인민들의 로동생활과 기타 생활풍습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풍경화분야에서도 자기 나라의 자연을 실감있게 보여주려는 화가들의 탐구와 진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조국산천의 자연환경을 담은 실경산수화들이 창작되였다.

19세기 중엽이후 나라의 근대화가 추진되고 민간화가들이 화단에 적극 진출하면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진호를 비롯한 평민출신화가들이 화단에 적극 진출하여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풍속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평민들의 화상과 신문과 서적의 삽화,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민의 민족적의분과 정서를 담은 참대와 기러기 등의 화조령모화 등이 많이 창작되였다. 지역적인 화단이 형성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대상들이 적지 않게 그려지면서 민속화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한편 고려시기에 봉건량반들의 사상감정을 대변하여 발생한 문인화(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봉건량반들인 선비들과 같은 문인들이 그린 그림)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문인량반들의 잔재간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더욱 성행하였다. 문인화는 봉건량반들이 그림의 주제로 소위 군자의 《품성》을 보여준다는 사군자를 내세우고 채색화보다 먹그림을 우선시하면서 화법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법을 모방하도록 강요한것으로 하여 이후시기의 회화발전전반에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화가들로서는 안견과 신사임당, 정선, 김홍도, 우진호 등을 들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꿈에 본 동산》, 《생각에 잠겨》,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 《가지》, 《옹천의 파도》, 《깊은 산을 찾아서》, 《주막》 등이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조휘남

박지원과 《열하일기》

18세기 우리 민족이 낳은 뛰여난 실학자이며 문호였던 연암(호) 박지원(1737년-1805년)은 《량반전》, 《허생전》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저서를 남기였다.

량반을 멀리하고 그 고루성과 보수성, 우매성을 반대하며 선진사상과 문물을 지향한 연암의 립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저술한 글들에서 표현되였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다.

연암의 이러한 사상적립장은 그가 집필한 려행기 《열하일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1780년 여름 어느날 연암은 밀봉된 편지 한통을 받았다. 연암의 8촌형인 박명원이 써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청나라에 가는 사절단이 이달안에 떠나게 되는데 정사(사신으로 가는 일행을 책임진 사람)는 자기라는것과 함께 문장으로 이름높은 연암이 동행하여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편지를 읽고난 연암은 놀랄 정도로 흥분하면서 기뻐하였다.

(내 평생에 한번 꼭 이루어보리라 마음먹었던것을 비로소 이루게 되였구나!)

이렇게 되여 그해 6월말경 연암은 사절단에 속해 압록강을 건넜다.

말안장 량쪽에 부담주머니를 달고 왼쪽엔 벼루, 오른쪽엔 붓한자루, 먹 한장, 작은 공책 네권… 이것이 그의 행장의 전부였다.

사신일행은 압록강을 건너 33개 역참에 2천 30여리의 먼길을 걸어 드디여 8월초에 연경(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연경에서 나흘을 머무르고 피서지인 열하에 나가있는 청나라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먼길을 떠났다. 열하는 연경에서 동북쪽으로 420여리를 더 가야하는 곳이였다. 멀고 험한 길이였지만 연암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사일행을 따라 밤낮으로 말을 달려 한주일 남짓하여 열하에 도착하였다.

열하에서 청나라의 이름있는 학자들과 만나 담론도 하고 열하의 절경들을 두루 구경한 다음 다시 연경을 거쳐 얼마후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박지원은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열하일기》를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4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려행기간에 보고 들은것에 자기의 견해까지 담아 이 려행기를 탈고하였다. 려행기는 《압록강을 건너서》, 《관내에서 본 이야기》, 《옥갑야화》 등과 그밖의 여러 편목으로 나뉘여져있고 매 편목들은 독립적인 내용의 주제를 가진 다양한 형식의 글들로 엮어져있다.

《열하일기》는 단순한 려행기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속, 제도, 력사, 고적, 인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실상을 진실하게 그려놓은 작품이였으며 연암의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을 알기 쉽게 전개해놓은 일종의 백과전서적인 저작이였다.

《열하일기》는 나오자마자 연암의 제자들과 그 문하의 선비들은 말할것 없고 문학을 배우는 청년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면서 읽히웠다. 사회의 이목은 대번에 《열하일기》에 집중되였다.

선진인사들과 청년들만 아니라 임금을 비롯한 조정의 중신들과 제노라는 량반사대부들도 앞을 다투어가며 이 책을 읽었다. 반향은 대단하였다.

청년문인들은 연암의 사상에 열렬히 공감하면서 연암의 목소리에서 시대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의 사상과 통속적인 문체를 본받았다.

《열하일기》는 연암자신도 사랑하여마지않은 저작이였다.

《열하일기》는 18세기의 가장 진보적인 사상조류였던 실학사상으로 일관되여있고 특히 자본주의적개혁에 관한 사상적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형편과 력사발전의 추이, 문학발전의 경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 * *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4)

- 보현사비 -

보현사비는 묘향산 보현사 대웅전 동쪽에 있는 비석으로서 1141년에 세워졌다.

보현사의 래력이 서술되여있는 이 비석은 받침돌과 몸돌로 되여있다.

비석의 높이는 2.45m, 너비는 1.12m이며 몸돌의 정면 웃부분에는 《묘향산보현사지기》라는 비문의 제목을, 그아래부분과 후면에는 1 200여자의 비문을 새겼다.

비문의 글씨체는 해서체이다.

정면에는 보현사의 래력을 적었으며 후면에는 보현사의 판할밑에 있던 여러 중들의 이름을 적었다.

비문에 의하면 1028년 황해도 황주군에서 난 탐밀이라는 중이 맨 처음 묘향산에 절(안심사)을 세우고 그 제자인 굉확이라는 중이 1042년에 240간의 보현사를 세웠다는것이다.

비문에는 또한 1042년에 보현사를 지은 후 태백산이라고 부르던 이 산을 묘향산으로 고쳐불렀다는 내용이 씌여져있다.

당시 태백산(묘향산)에는 360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비문에는 1067년에 고려 인종왕이 탐밀과 굉확 두 중이 죽은 후에도 보현사가 그 제자들에 의하여 번성하는것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보현사에 땅을 기증하였다는 내용이 씌여있다.

보현사비는 우리 나라 중세기의 력사 특히 고려시기 토지제도와 사회경제형편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준다.

그리고 비문은 고려시기에 류행된 글씨와 문체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가치있는 자료로서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유산으로 된다.

* * *

상 식

겨울철감기예방

겨울철감기를 예방하자면 방안습도를 약간 높이는것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방안의 습도가 40%이하이면 호흡기계통의 항균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더운 음료를 자주 마셔도 몸이 불편한 감을 없앨수 있다.

그것은 더운 음료의 향과 수증기가 타액을 비롯한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해지는것을 방지하여 감기에 견딜 능력을 높여주기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홍차, 록차, 레몬수 등을 마시는것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록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류행성감기비루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매일 아침 찬물로 세면을 하고 코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야화

범고개

고구려 장수왕때 있은 일이다.

나라의 남쪽변방인 아리수(한강)의 수자리군사가 되여 평양성을 나선 인범과 무웅이라는 두 총각군졸이 여드레만에 오늘의 개성지방의 어느 한 고을에 들어섰다.

시장기를 느낀 그들이 주막집에 들어가 점심 겸 저녁을 사먹고 길을 떠나려는데 늙수그레한 집주인이 그들이 가는 방향의 어느 나지막한 고개길에 해묵은 사나운 범이 자주 나타나 사람을 해친다고 말해주는것이였다.

무웅이 씩 웃으며 《주인님, 념려마소이다. 험한 산골을 지나올 때도 범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았는데 아무렴 그런데서 범을 만나겠소이까.》라고 말하였다.

집주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들 통 깜깜이로군. 범은 깊은 산중에만 있는게 아닐세. 깊은 산중의 범은 사실 사람을 해치지 않아. 사람을 해치는건 인가근처에 내려오는 해묵은 범이야.》

무웅은 허리에 찬 장검우에 손을 얹으며 자기가 오늘 그놈을 기어코 때려잡아 이 고장의 호환을 없애겠다고 장담하였다.

집주인이 어처구니가 없는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 죽지 못해 안달이 났나. 여러 사람을 해친 그놈의 범이 그래 자네들이 고구려의 군사라고 해서 그냥 둘줄 알아?》

《주인님, 너무 근심마소이다.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가 무술을 익혔고 메돼지도 잡아보았소이다.》

길을 떠난 그들이 고개길에 이르렀을 때 해는 저물어 사위가 어둑시근해졌다.

그들이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구름속에 몸을 숨겼던 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는 남쪽으로 지세가 낮아 길도 넓었고 내리막길이여서 이제부터는 걷기가 한참 수월해보였다.

《에익, 범을 잡을가 했더니 맹랑하군. 에라, 쉬여나 가자.》

길가운데 주저앉으며 하는 무웅이의 말에 《좋을대로.》하며 인범이도 허리를 굽히는데 무웅이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다급한 소리로 웨쳤다.

《범, 범이다!》

언제 나타났는지 황소만한 범이 그들의 앞에 턱 버티고있었다. 이마빡주위에서 시퍼런 두줄기의 불빛이 뿜어나오는걸 보아 주막집주인이 말한 그 해묵은 범이 틀림없었다.

어느새 칼을 빼들고 먼저 살같이 뛰쳐나간 무웅이 경당에서 다진 검술을 펼치였다. 무웅이가 휘두르는 칼에 얻어맞아 땅바닥에 모재비로 나가자빠져 몇바퀴씩이나 몸뚱이를 구르고난 범이 후다닥 뛰쳐일어나 더 무섭게 달려들었다.

인범은 친구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칼을 내휘두르며 무웅이를 막아나섰다. 인범이 휘둘러대는 칼이 어찌나 날쌔게 허공을 가르는지 범은 다가들 생각을 못하고 그저 기광을 부리며 헤덤벼대기만 하였다.

활을 꺼내든 무웅이 살을 재우고 범을 겨누는데 인범이와 범이 너무도 재빠르게 엇바꾸어 돌아가다보니 선뜻 활을 쏠수가 없었다.

독이 날대로 난 범이 나무를 등지고 선 인범을 덮치려는 순간 무웅은 당겼던 활시위를 놓았다.

엉덩짝에 활을 맞은 범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며 인범이에게로 달려들자 무웅이가 몸을 날려 그놈의 허리를 그러안았다. 인범은 무웅이를 떼버리려고 태질을 하는 그놈의 목을 두팔로 감아안았다.

무웅이도 인범이도 손을 놓으면 범에게 먹히울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힘껏 그놈을 껴안았는데 땅에 부딪치고 나무에 긁히운 그들의 몸에서는 피와 땀이 범벅이 되여 흐르고있었다. 그런 틈속에서도 인범이는 몸에 품고있던 장도칼을 뽑아 범의 숨통에 푹 박았다.

선지피를 내뿜으며 범은 단말마의 발악을 하는지 솟구쳤다가는 땅바닥에 태질하기를 거듭했다.

마침내 기운이 빠진 범은 땅바닥에 너부러졌다.

바로 그때 불망치를 추켜든 한무리의 사람들이 고개길에 나타났다. 주막집주인과 그 집에 든 길손들이였다.

죽은 범과 무웅이와 인범을 번갈아 살펴본 주막집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난 우리 고구려군사가 어이 그리도 강한지 오늘 비로소 똑똑히 알았네. 진정 백성을 위해서라면 제 한몸도 아낌없이 내대려 하는 자네들의 그 마음이 바로 고구려군사들의 마음이 아니겠나.》

그후 그 고을사람들은 이 고개를 《범고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추억하군 하였다고 한다.

* * *

력사인물

왜적을 떨게 한 정기룡

정기룡(1562년-1622년)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조국을 지켜 왜적과 용감히 싸운 애국적무관이다.

경상도 곤양에서 좌찬성 정성호의 아들로 출생한 그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청렴결백하였으며 남을 위하는 마음이 매우 컸다.

1580년에 경상도 고성에서 향시에 합격하였고 그후 1586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0년부터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신립의 휘하에 들어가 훈련원 봉사로 있었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별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경상우도방어사 조경을 따라 행동하다가 경상도 거창에서 일본침략군 500여명을 격파하는 전투공로를 세웠으며 그후 금산에서 싸웠다.

이 시기 금산전투에서 조경이 포로가 되였는데 정기룡이 적진에 뛰여들어가 조경을 구출하였다.

그후 상주판관으로 되여 성안에 둥지를 틀고있던 적들을 크게 무찌르고 강점당한 상주성을 탈환하였다.

그 전투공로로 1593년에 회령부사로 승진하였고 이듬해에는 상주목사 겸 감사군대장으로 되였다. (그가 거느린 군사들이 싸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으므로 감사군이라고 불렀다.)

1597년 주변 9개 고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금오산성을 지켰다.

또한 고령에서 왜놈들과 싸워 승리하고 적장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경상도 성주, 합천, 초계, 의령, 경주, 울산 등지를 련이어 탈환하였다.

고령에서의 전투공로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다.

그후 김해부사, 밀양부사, 울산부사를 거쳐 말년에 3도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까지 승격하였다.

* * *

상식

조선민족의 전통화장품

우리 나라의 이미 알려진 고대의 여러 유적들에서 녀성들의 화장도구인 청동거울과 청동화장품통이 나오고 분가루와 같은 화장품이 발굴된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녀성들이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사용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녀성들의 미적요구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것은 화장품제조기술을 발달하게 하고 종류의 다양성을 낳게 하였다.

분으로는 천연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분과 식물재료에 일종의 물질을 열처리하여 섞어 만든 연분이 있었다.

연지로서는 어느 한 천연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것과 잇꽃으로 만든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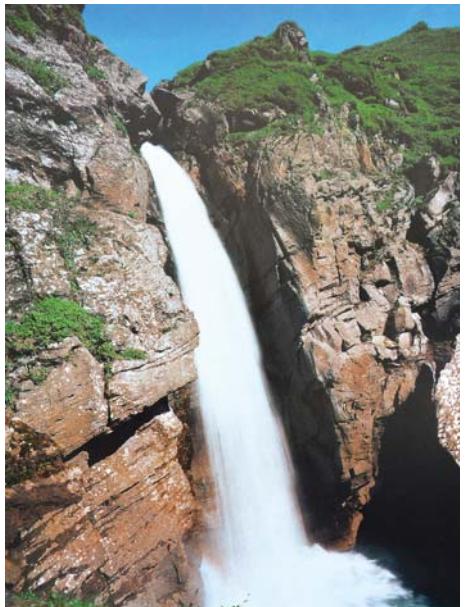
머리기름으로는 냄새도 없고 윤기가 오래 가는 밀기름(밀랍과 기름을 섞어 만든것)과 동백기름을 많이 썼다.

고려시기에 와서 화장품을 전문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이 생겨나고 화장품의 제조가 보편화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장품은 살결을 윤택하고 부드럽게 해주며 피부의 손상을 막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분은 식물성재료로 만든것이 많이 쓰이였으며 조개껍질이나 진주를 가루내여 만든 분도 쓰이였다.

연지 역시 잇꽃으로 만든것을 더 애용하였다.

* * *

백두산밀영고향집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

- 백두산 -

백두산은 북부조선의 량강도 삼지연군과 중국과의 경계에 솟아있는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조선혁명의 성산, 조선민족의 조종의 산이다.

백두폭포

아득히 펼쳐진 천고의 수림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백두련봉의 웅장하고 숭엄한 기상은 그 어느 명산에도 비길수 없다.

장군봉과 향도봉, 백운봉, 차일봉을 비롯한 백두련봉들을 비껴안고 산정에 펼쳐진 천지는 볼수록 신비롭다.

둘레의 길이가 14.4km, 면적이 9.16km², 최대깊이가 384m에 이르는 백두산천지는 세계에서 고산지대의 호수들중 가장 큰 호수의 하나에 속한다. 천지에 시원을 두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고있으며 백두폭포, 사기문폭포를 비롯하여 신비한 고산풍경을 보여주는 폭포들도 있다.

변화무쌍한 일기는 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또 하나의 독특한 풍치이다.

고요하던 천지호반에 난데없이 폭풍이 일어나 하늘땅을 진동하고 비구름을 몰아오다가도 순간에 검은구름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열린다.

내리던 비가 어느사이에 우박으로 변하여 쏟아붓기도 하고 한켠에서 물기를 함뿍 머금은 꽃송이들이 해빛을 반기는가 하면 다른켠에서는 흰눈송이들이 세차게 날리는 등 천지조화라고밖에 달리는 표현할수 없는 신비스러운 풍경들을 볼수 있다.

눈속에서 피여나는 만병초와 천지산천어, 백두온천과 백암온천을 비롯하여 백두산의 특이한 자연상도 주목을 끈다.

백두산지구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사적이 깃들어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다.

이곳에는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이였던 백두산밀영이 자리잡고있다.

구름우에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은 우리 나라의 조종의 산으로서 반만년의 력사와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온 민족의 기상과 조국애의 상징이다.

백두산의 기암들

지난해 9월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오늘 이곳으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없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백두산천지의 산천어

눈속에 핀 만병초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

건강식품-콩나물 (1)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과 같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한겨울이 오니 지난해 가을 평양을 찾아오셨던 재중동포할머니들의 정깊은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선히 안겨듭니다.

앞으로 몸이 건강해야 조국에 더 자주 올수 있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중국 흑룡강성 대경시에서 살고있는 리경숙할머니, 생각나십니까?

그때 어느 한 기념품상점을 돌아보던 할머니는 문득 매대에 진렬된 귀엽게 생긴 크지 않은 콩싹장식품을 보며 못내 기뻐하더니 문득 우리에게 《나는 콩음식들가운데서 콩나물을 특별히 좋아한다네. 콩나물은 겨울에 그 맛이 더 좋거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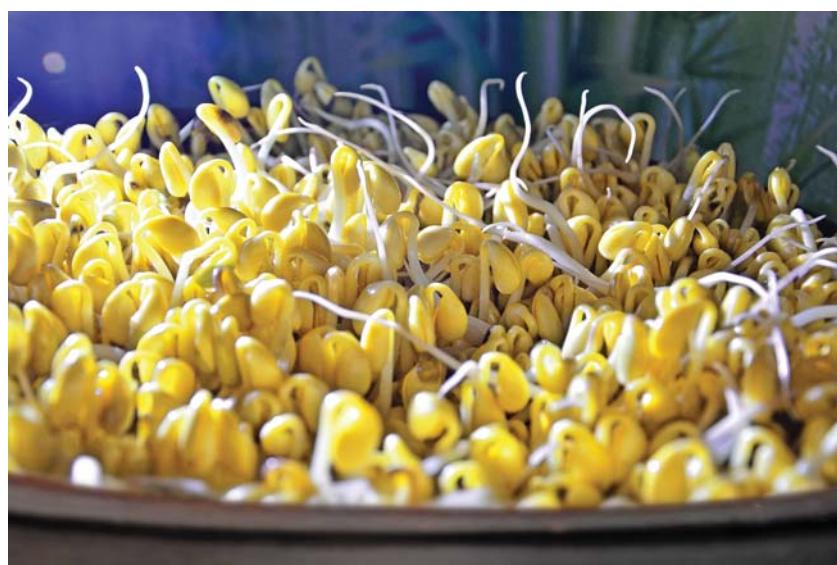
할머니의 말을 되새겨보느라니 창밖에는 맵짠 바람이 불어쳐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콩싹처럼 움트는 생각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여름철의 신선한 남새와 같이 한겨울에도 생신하게 먹을수 있는 천연식품인 콩나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기에 새해에 동포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도 있고 해서 올해 첫호에서는 건강장수식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는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가 합니다.

콩나물은 콩의 원산지인 우리 조국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여온 식료품의 하나입니다.

콩나물이 생겨나게 된 유래는 먼 옛날 모래우에 우연히 떨어진 콩알이 빛과 공기, 물, 토양과 같은 자연적인 영향을 받으며 절로 콩싹이 자란데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며칠전 소학교에 다니는 저의 아들은 자연수업시간에 식물의 싹에 대해 배웠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콩나물이 바로 콩싹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면서 제손으로 콩나물을 꼭 길러보겠다고 야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의 학습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식탁에 콩나물음식도 올려볼겸 얼마간의 콩을 시루에 안쳤습니다.

콩나물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분들이 알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분들을 위해 콩나물기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런콩이든 검은콩이든 콩나물을 기를수 있는데 콩알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것이 적당합니다.

먼저 콩나물용콩을 잘 선별하여야 합니다. 벌레먹은것이나 타박받은 콩알이 섞이지 않았는가를 가려보아야 합니다. 콩나물용콩으로는 기계로 탈곡한 콩보다 손으로 깍지를 벗겨 얻은 콩이 실수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고른 콩을 절반정도 갈라내여 찬물에서 4~5시간정도 충분히 불구면서 시루나 구멍이 있는 상자 같은데 가제천 혹은 벼짚으로 성글게 짠 시루용멍석을 안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조국에는 특산물들이 많습니다.

특산물이란 나라나 고장에서 나는 물산가운데서 그곳을 대표할만큼 유명한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부터 각 도 특산물들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평양의 특산-평양랭면

평양랭면은 예로부터 조국인민이 사랑하는 고유한 민족음식으로서 맛있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음식입니다.

평양랭면이 소문난것은 국수원료와 국수물, 꾸미와 고명, 국수담는 그릇과 국수말기 등에서 특징이 있기때문입니다.

평양랭면은 장수식품으로 알려진 메밀가루를 기본원료로 하고있으며 국수오리는 지나치게 질기지 않고 먹기에 맞춤합니다.

뿐만아니라 국수를 마는 국물도 평양지방에서 유명한 동치미국물이나 고기국물에 마는것으로 하여 다른 지방의 메밀국수보다 맛이 시원하고 달며 새큼하고 감칠맛이 있어 뒤맛이 좋습니다.

평양랭면을 담는 그릇은 놋대접이나 놋쟁반 등을 쓰며 국수를 말 때에는 놋대접에 국물을 조금 두고 국수를 사려서 수북이 담은 다음 그우에 김치, 고기, 닭알, 배, 오이를 비롯한 꾸미를 얹고 실파, 실고추 등으로 고명한 후 국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말아낸 평양랭면은 맛이 좋을뿐아니라 걸보기와 차림새에서도 특색이 있어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민족음식을 대표하는 우수한 료리중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 * *

쪽에 놓고 그우에 나머지 마른 콩을 먼저 골고루 펴놓습니다.

마른 콩우에 잘 불군 콩을 안친 시루를 물을 받을수 있는 큼직한 그릇우에 나무로 만든 버팀대를 걸쳐놓고 올려놓습니다.

시루안에 빛이 들어가지 않게 젖은 천을 씌워주고 22~24°C의 물을 하루에 2~3회씩 뿌려줍니다. 물주기를 할 때 시루밑용기의 물을 다시 떠서 주는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싹이 트는데 일단 싹이 튼 다음에는 4~5시간사이를 두고 물을 뿌려주어야 합니다. 집안온도에 따라 콩나물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때문에 콩나물의 싹뿌리가 1㎝미만이고 콩나물대가 5~7㎝정도 될 때까지 자래우면 됩니다.

콩나물기르기에서 류의할 점은 물을 줄 때마다 콩싹이 빛을 보지 않도록 하는것과 함께 비료 같은것을 절대로 섞어주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다 자란 콩나물은 찬물에 씻으면서 콩껍질을 골라내고 음식감으로 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싶이 콩나물을 길러먹으면 콩알상태에서는 없던 비타민C가 많이 생기게 되므로 세계적으로 영양가가 높고 깨끗한 남새로 인정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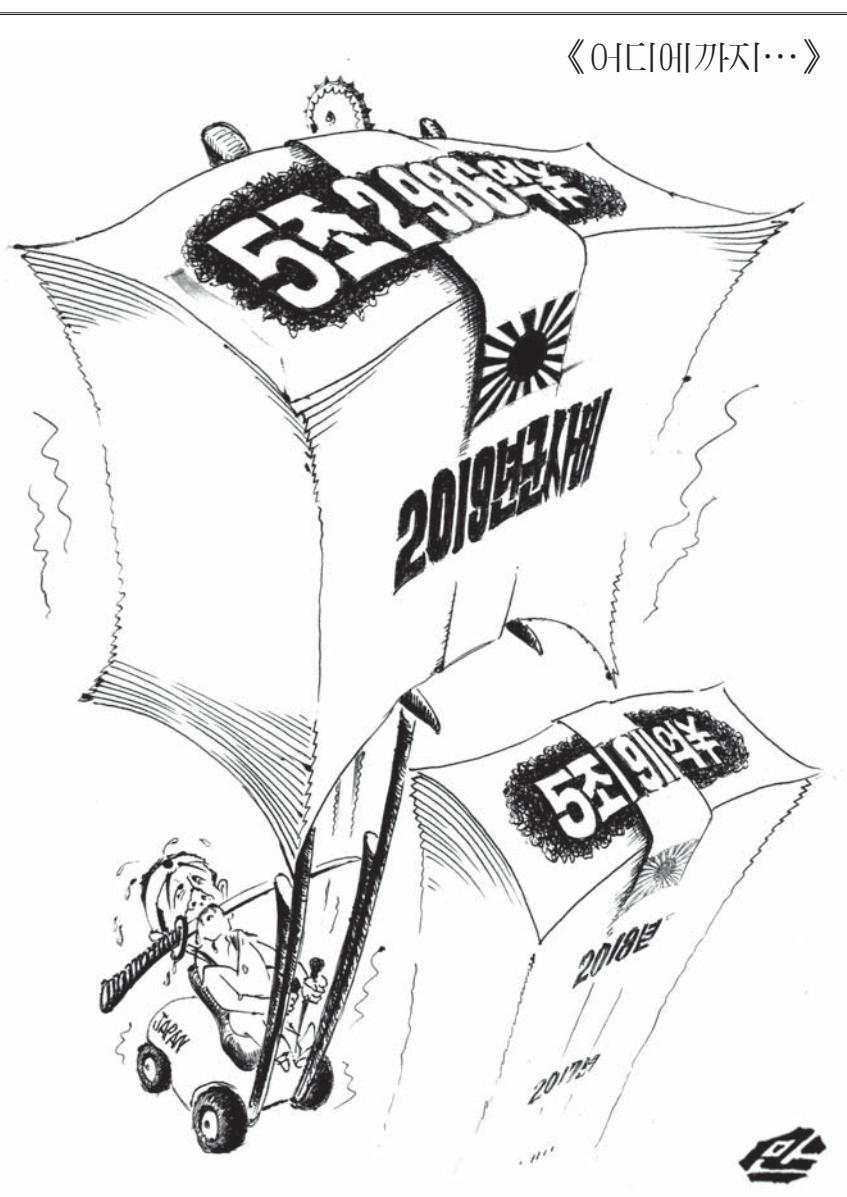
그럼 다음호에서는 콩나물음식 몇가지를 계속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해마다 증대되는 일본의 군사비

오늘 세계는 조선반도를 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평화와 안정, 화해의 기류가 감돌고있는것을 두고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반도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군 하던 체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한채 제국시대를 부활시켜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아직도 헤여나오지 못하고있다.

군사비문제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국민총생산액의 1％라는 군사예산의 명목상 한계도 이제는 썩은 바자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비가 증대되는 속에 《자위대》는 준항공모함과 신형잠수함 및 신형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용무기들로 장비되고있다.

지난해 일본반동들은 장거리작전이 가능한 최신예스텔스전투기, 항속거리가 1만 2 000km이상인 공중급유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장비들까지 끌어들이였다. 이러한것들이 결코 방어용이 아니라는것은 너무나 자명한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미국의 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를 구입, 배비하려고까지 하고있다. 이것 역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있다.

보다싶이 일본이 해마다 군사비를 증대시키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재침세력, 광신적인 군국주의실체로 급속히 떠오르고있다.

돌이켜보면 일본 수상 아베가 집권한 후부터 해마다 군사비가 그 전해의 기록들을 갱신하였는데 6년동안 련속 사상 최고수준으로 늘인데다가 보충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종전의 군사비할당한계선을 돌파하여왔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7월 일본방위성은 2019회계년도 군사비예산을 또다시 사상 최대규모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시키였다.

자민당은 군사비문제와 관련한 제언서라는데서 《나토가 방위비의 목표로 삼고있는 국내총생산액의 2％수준달성을 참고로 삼으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것을 요구하였었다. 뿐만아니라 현정세가 《전후 최대의 위기적인 상태》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령토를 지켜내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군사비를 현재의 배로 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쪼아박았다.

이것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1％수준미만으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한 아베의 립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있다.

《도꾜신붕》은 이렇게 까밝혔다.

《1970년대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1％수준미만으로 한다는 틀거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기 나까소네내각은 이것을 철페하였다. 지금에 와서 아베내각은 군사비를 배로 늘구려하고있다. …》

일본이 해마다 군사비를 늘이고있는 목적은 바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여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자위대》를 《대동아공영권》실현의 망상밑에 다른 나라들을 피묻은 군화발로 메주밟듯 하던 때의 일본군으로 변신시키고 재침의 길로 내달리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은 자멸적인것이다.

본사기자 연옥

상 식

민족고전 《동국병감》

《동국병감》은 조선봉건왕조 초기의 봉건관료학자 정린지, 리석형 등이 1450년경에 편찬, 출판한 책으로서 B. C. 108년부터 고려 말기인 1382년까지의 약 1 500년간에 있은 37차의 전쟁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책은 상, 하권으로 되여있다.

상권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시기(10세기말-11세기초) 인민들이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친 20차례의 전쟁이 취급되고있다.

하권에는 고려인민이 외래침략자들을 영웅적으로 격퇴한 전쟁 등 17차례의 전쟁기사가 실려있다.

책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선조들의 영웅적투쟁과 성기, 부분노를 비롯한 애국명장들이 전투에서 활용한 전술, 전법들도 서술되여있다.

이 책은 조선봉건시대의 력사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랜 책이며 《고려사》와 기타 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자료들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고대, 중세의 전쟁사와 군사예술, 군사제도, 우리 선조들의 반침략투쟁업적 등을 연구하는데서 자료적가치를 가진다.

* * *

카멜레온—《자유한국당》

지난해 남조선에서 있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또다시 변신하려고 하고있다. 력대 이 《당》이라는것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써온 상투적수법이기는 하지만 카멜레온이 아무리 변색을 한다 해도 카멜레온이 아니겠는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것은 처음 《자유당》으로 불리우다가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변신해왔지만 외세의존에 환장한 역적배들의 소굴, 사대정치의 본산으로서의 추악한 본태는 달라진것이 없다.

군통수권을 외세에 섬겨바친것도, 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해온것도,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것도, 남조선을 외세의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몰아넣은것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부정해나선것도, 세상을 경악시킨 《세월》호참사를 빚어낸것도,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같은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것도 다 《카멜레온당》이 저지른 만고대죄악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 조상들처럼 《당》의 《쇄신》과 《변화》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정체와 죄상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너울에 지나지 않는다.

개꼬리 삼년가도 황모 못되고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력대 사대의 터밭에서 서식하고 매국과 배족을 바통으로 이어받은 이자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실지 앞에서는 《국민들이 부를 때까지 쇄신과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것》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이자들이지만 돌아서서는 외세의존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동족을 해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특히 지난해 여러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온 민족과 세계가 이를 지지하며 환영의 열풍을 일으키자 바빠맞은 이 패거리들은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관련하여 《국민혈세를 가져다줄 궁리》만 한다느니, 《퍼주기》니 하는 악담들을 해가며 특대사변의 의의를 깎아내리려고 발광하고있다. 지어 북과 남이 채택한 선언들의 《국회》동의에 대해서도 《북에 돈을 갖다주는것으로 평화가 구축되는가.》, 《한미동맹균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불신과 악의를 드러내며 전면반대해나서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패거리들은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첫 사업으로 진행된 10. 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의 성과도 중상모독해나서면서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을 일으켰다.

현실은 이런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그냥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번영, 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악성종물인 이 반역의 무리들은 매국역적 리명박, 박근혜처럼 매장해버려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민족의 력사는 카멜레온—《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정체와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본사기자

《흰까마귀도 있나?》

현무문의 겨울　　본사기자 김금진

하얀 눈이 나무가지마다에 눈꽃을 피우고 고색찬연한 현무문의 지붕우에도 수북이 내려앉아 자기의 유구함을 돋구어주니 어찌 설경속의 평양의 이채로움이라 하지 않으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882161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